



[화물연대 파업 후폭풍]
車업계
물류난 대응
TF 구성
04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 코스피 2504.51 (-91.36)	↓ 코스닥 828.77 (-41.09)
↑ 금리 (미국 3년) 3.514 (+0.239)	↑ 환율 (원·달러) 1284 (+15.10) (13일)

전세계 드리운 'R의 공포'... 코스피 날개 없는 추락

(Recession·경기침체)

코스피지수가 3.52%나 급락하며 연저점을 갈아 치웠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예상을 웃돈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급락한 여파다.

미국의 5월 CPI는 약 41년 만에 최고치인 8.6% 상승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공개된 수치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쇼크가 이른바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1.36포인트(3.52%) 하락한 2504.51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5월 12일 장중 기록한 연저점(2546.80) 아래로 추락했다. 심리적 저항선인 2500선마저 위협하고 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6688억원을 나홀로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5003억원, 기관은 2192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 마감했다. 의료정밀(-6.85%), 건설업(-5.18%)기계(-4.83%) 등의 순이다.

코스피 전일 대비 3.51% 하락
2500선 위협 2504.51에 마감
기관·외인 '팔고' 개인 '순매수'

시총상위 60개 종목 일제 파란불
삼성전자·네이버 등 신저가 경신

상승 종목은 42개, 하락 종목은 881개, 보합 종목은 6개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0개 종목도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왔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2.66%)를 비롯해 언택트 대장주인 네이버(-5.93%), 카카오(-4.49%)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41.09포인트(4.72%) 급락한 828.77에 장을 마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CPI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정점 통과)' 기대감은 여전하다"며 "단, 높은 인플레이션 유지로 인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매물 출회기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60원 오른 1283.50원에 마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코스피가 미국의 물가 충격 등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 대비 91.36포인트(3.52%) 하락한 2504.51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1.09포인트(4.725%) 떨어진 828.77로, 원·달러 환율은 15.19원 오른 1,284원에 거래를 마쳤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반도체 인력난 심화... 연간 1600여명 부족

현장 못따라가는 교육인프라... 대학 인력양성 혁신 시급

삼성전자 '2나노' 개발하는데
학교선 200마이크로미터 배워

반도체 업계 인력 부족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민관이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동안 해결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도 정비뿐 아니라 대학 교육 인프라, 교수진 확보 등 전반적인 혁신이 없다면 인재 확보는 물론 질적 하락까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오는 2030년까지 약 1만5000명 인력을 추가로 뽑아야 한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숫자다.

그러나 실제 반도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인력은 600여명에 불과하다.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연간 1600여명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앞으로는 인력난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등 해외 장비 업체들도 국내에 R&D 등 거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인력 부족난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다. 반도체 산업 경쟁이 심화하고 투자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대만 TSMC와 미국 마

이크론 등이 급하게 인력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업체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이유가 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는 추측도 있다.

반도체 업계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기 어려워 반도체 학과 역시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 수도권에 대학들이 반도체 학과를 새로 개설해 정원을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수년 뒤부터는 반도체 전공 인력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다.

일단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 초 산업계

주장을 일부만 수용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도 주요 대학들과 계약학과를 새로 개설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다만 학과만 새로 만든다고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늘어난 학과 정원을 가르칠 교수진을 당장 확보하기 어렵는데다가, 학내 인프라도 실제 산업 현장에 비해 지나치게 낙후돼있어 오히려 새로운 인력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尹 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히 가동”

윤 대통령-한 총리 첫 주례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및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함께 첫 주례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방문규 신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배석했다.

당초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간 주례회

동은 지난달 30일로 잡혀있었으나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차질이 생기며 2주가량 미뤄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주례회동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국정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두 분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고,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는 점을 강

조했다”며 “그래서 규제혁신전략회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정부는 규제심판제도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5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4.1%p ↓ ... 취임후 첫 50% 밀로”
▲ 김건희 여사 ‘개 식용 종식’ 주장 “개 먹는 나라 한국·중국 뿐” /뉴시스

▲ 계파 세력 선 그은 與 ‘민들레’... 친윤계 결집 우려 여전
▲尹, 野 추진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 소지 많다”



▲ 대출·금리 직격타... 노원 아파트값 1억 넘게 ‘뚝’ /사진뉴스
▲ 주담대 금리 7%로 뒤편... 서울 중형 아파트 월 상환액만 291만원